

등록금 인상분, “인프라 · 학생 지원에 전액 재투자”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전국 사립대가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발표하는 가운데, 우리학교도 지난 17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등록금 5.1% 인상을 확정했다. 우리학교 운영 수입을 타 대학과 비교하고,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된 예산이 어디에 투자될지 계획을 살펴본다.

지난 13일 개최된 재정 운용 설명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등록금은 서울권 주요 8개 사립대 중 가장 낮다. 인문사회계열은 평균 3,147,000원, 이학계열 3,677,000원, 공학계열 4,290,000원으로, 주요 사립대 평균보다 약 40만 원 낮다.

기부금 역시 1410억 원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주요 사립대 평균은 3557억 원으로, 약 2147억 원 차이가 난다. 등록금이 동결된 최근 16년간 최저지급 연평균 인상률은 5.92%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연평균 인상률은 약 1.99%, 누적물가상승률은 39.82%다. 기자재 비용, 전기세,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 추세였지만, 등록금은 동결돼 재정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획조정처 김도균 부처장은 “16년 동안 상승했던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을 감안하면 사실상 등록금은 인하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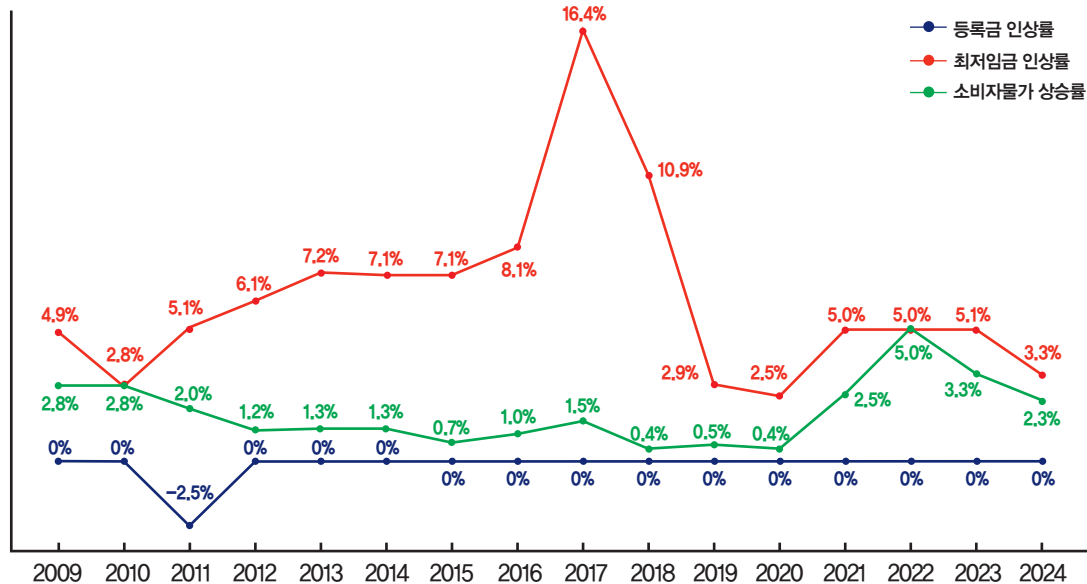
높은 교원 이탈률과 예산 삭감

2011년부터 2024년까지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은 2.67%다. 하지만 우리학교 교원 연평균 임금인상률은 0.89%에 불과했다.

기획조정처 측은 신입 교수 채용, 인프라 발전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김 부처장은 “공무원 월급은 14년 동안 약 37%가 인상됐지만, 교원은 1년에 1%도 오르지 못했다”며 “우수한 교원을 모시고 싶지만, 월급과

〈주요 사립대 등록금 비교〉			
	인문사회	이학	공학
경희대	3,147,000	3,677,000	4,290,000
타 7개교 평균	3,560,161	4,149,232	4,684,946
평균과 차이	413,161	472,232	394,946

〈등록금, 최저임금, 소비자물가 인상률 (2009~2024)〉



연구 시설이 열악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처장은 열악한 학교 인프라로 교원 이탈률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처장은 “공대 교수님을 어렵게 영입해도 2, 3년이면 떠났다”고 말했다. “공학이나 이학처럼 실험이 필요한 교수님께 할당할 실험실이 없다”며 “국제캠은 학교 밖 애지원에 교수님 연구실을 주곤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부처장은 “서울캠은 건물 대부분이 50년 이상 된 상태”라며 “비가 새거나 공조기가 20년 이상 돼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총무관리처 한덕영 부처장은 “그 동안 시설 투자를 거의 못 했다”며 “이로 인해 관리팀 예산이 동결되기 전 예산의 10분의 1 정도만 편성됐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인상 후의 계획에 대해 “육상 방수, 외벽 도색, 소방 시설 강

화, 아스팔트 포장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현재 관리팀 인력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장학금 II 지원과 인프라 구축 투자 계획

등록금이 5.1% 인상돼 약 100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기획조정처는 해당 수입 전액을 학생과 학교 발전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장학금 및 학생지원비, 교육 시설 투자, 연구비 및 교육 연구 장비 구매 등에 사용한다.

다만 등록금 인상으로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을 조건으로 내걸며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우리학교는 등록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해당 연도 1년간 국가

장학금 II 유형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기획조정처 측은 해당 장학금을 등록금 인상에서 들어오는 추가 수입에서 지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 부처장은 “해당 금액은 현재 장학팀에서 교내 장학금으로 배정하기 위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학부 장학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후화 시설 개선에 등록금 추가 수입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김 부처장은 “이미 인프라 개보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다 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총장실 김동건 정책실장은 “총장님도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총학 “법정 상한선보다 낮은 인상률 요구”

국제캠 총학 박병준(국제학

2017) 회장은 등심위 개최 전 우리신문과의 취재에 “보다 낮은 수치의 인상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캠 신하균(사회학 2023)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은 “학교측에서 법정 상한선인 5.49%를 요구해도 그보다 낮은 인상률을 요구하게 될 것 같다”며 “공대나 메디컬 계열 학과는 특히나 인상률에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3일과 14일 양 캠퍼스에서 열린 2차 재정 운용 설명회에서 학생의 다양한 의견이 등장했다. 생대는 이학사 학위를 받음에도 공학사 등록금을 내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생대 이영현(한방생명공학 2021) 부학생회장은 “생대 학생이 한 학기에 429만 원의 공학 계열의 등록금을 내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정책실장은 “등록금을 책정할 때에는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 등의 요소를 따진다”며 “실험이나 교원의 요인으로 공학 계열 수준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치대 김기연(치의학 2022) 회장은 “현재 우리학교 치대 등록금이 전국에서 비싼 측에 속하는데, 학교 시설은 안 좋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대 성지창(약학 2022) 회장은 “우리학교가 등록금이 낮은 편이라는 것에 메디컬 계열은 예외”라며 “계열별로 인상률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기획조정처 김 부처장은 “계열별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계열별 인상이 이뤄지면 학과별로도 측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등록금을 원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메디컬 계열은 카데바 실습 값이 비싸다”며 “우리학교 메디컬은 위상 등을 고려하면 비싼 편은 아닐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